

총평

문법 영역에서 4문항, 어휘 영역에서 2문항, 독해 영역에서 14문항이 출제되어, 독해 영역의 출제 빈도가 강화된 최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시험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난이도가 조정되어 있어, 일정 실력 이상의 수험생이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비문학의 다양한 문제 유형과 자주 출제되지 않은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인해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산문 영역은 고전과 현대의 다양한 지문과 문제 유형으로 향후 출제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B책형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영역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첫 문항인 1번 문제가 까다로워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영역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04번의 혼동하기 쉬운 단어와 07번의 본딤말과 준말의 관계에서 활용의 제약이 있는 준말의 표기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띄어쓰기의 15번은 ‘해도 해도’라는 첩어의 띄어쓰기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정답이 선택지에 쉽게 제시되었습니다.

어법에 관한 문제인 01번의 중복 표현 문제는 조사나 어미의 의미와 부사의 의미를 각각 파악해야 하는 문제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어휘 영역

한자의 독음이나 표기를 묻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고유어의 문맥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는 유형인 10번과 상황을 제시문으로 주고 고사성어를 찾는 08번은 제시된 한자 자체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지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독해 영역

14문항이나 출제되고 다양한 지문과 문제 유형을 보였습니다.

비문학 독해에서 핵심 주장 찾기 2문항(06번, 09번)은 글의 대상을 파악하면 되고, 문맥적 의미를 찾는 17번 문항은 1단락과 2단락을 대응하며 풀면 되는 문제였으나, 추론을 통한 문제인 19번 문항은 선택지를 어절 단위로 끊어 읽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순서를 찾는 구조적 전개인 18번은 통시적인 시간을 대입하여 풀어야 하는 유형이었으며, 주제에 적절한 글감 찾기(03번), 퇴고(11번) 등의 쓰기 영역과, 대화의 원리(02번), 보도 기사별의 표현(13번) 등의 말하기 영역은 평소 자주 나오지 않던 영역이었습니다.

산문은 현대 소설(20번)과 고전 ‘주몽 신화’(20번), ‘가전체 소설’(12번), ‘봉산 탈춤’(14번) 등의 다양한 영역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내용 파악만이 아닌 인물이나 주제, 배경을 찾는 문제 등의 문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의 조건과 유형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혁명국어 이정혁

(문제와 해설)

0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 ④ 그는 예의가 바를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01. ④

‘어법’ 중 중복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다만 조사나 어미의 의미와 중복되는 부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선택지에 주어진 부사를 생략하고 해석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르뿐더러’는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 ‘무척’과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는 예의가 바를뿐더러 부지런하다.’와 ‘그는 예의가 바를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는 강조의 의미가 첨가되어 다르며 나머지 선택지와 달리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의 구성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부터’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의미의 부사 ‘먼저’의 의미가 중복된다. ‘형부터 해라.’와 ‘형의 먼저 해라.’의 의미가 같음을 파악해야 한다.
- ②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만’과 ‘오직 한 곶으로’라는 의미의 부사 ‘오로지’의 의미가 중복된다. ‘채훈이는 빵만 좋아한다.’와 ‘채훈이는 오로지 빵을 좋아한다.’의 의미가 같음을 파악해야 한다.
- ③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마다’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라는 의미의 부사 ‘각각’의 의미가 중복된다. ‘발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편다.’와 ‘발언자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의 의미가 같음을 파악해야 한다.

0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בות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오신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시다.

-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02. ②

두 화자의 대화 내용을 중시해서 파악해야 한다. 김 대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미안함을 표현하였을 때 이 부장은 상대방의 미안함을 '괜찮다'라고 하며 늦은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두 화자의 의견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화자인 이 부장 자신에게 주는 혜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인 김 대리에게 대한 칭찬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03. ①

글의 주제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으로 글의 대상인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개인 정보의 유출로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발송된 사건은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다.

0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재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릅니다.

04. ①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느라고’와 구별해야 한다.

예) · 하노라고(하느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 철수는 어제 책을 읽느라고(읽노라고×) 밤을 새웠다.

(오답 피하기)

② → 결제된다.

결제(決済):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③ → 걸잡아서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건잡다: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 ㉠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④ → 갈음합니다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가름: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

가늠: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사물을 어렵
잡아 헤아림.

0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
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변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파리 끈 입에 물고 삼짝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변이 자연스
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양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혹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② 과가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05. ③

대상의 감각이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샘’은 정감 어린 이웃 간의 관계를 회상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 ④ ‘-습니다’, ‘-지요’, ‘-구요’ 등의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06.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해엄처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06. ③

1단락에서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고 2단락에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여 환경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닌 환경을 변형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단락의 주장인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에서 알 수 있다.

0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설 생각이다.
- ③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07. ①

→ 머물렀다

본딧말과 준말의 관계인 ‘머무르다/머물다’와 ‘서투르다/서툴다’는 본딧말만 모음 어미 ‘-아/-어’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단어이다.

08.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 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 ① 兔死狗烹 ② 捲土重來 ③ 手不釋卷 ④ 我田引水

08. ②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인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③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0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징을 담보할 수 있다.

09. ④

1단락의 일상적인 상식을 2단락에서 비판하고 있다. 즉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중심 주장이다.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10. ③

‘내던져 버리다.’라는 의미의 ‘투기하다(投棄--)’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 포기하다(拋棄--):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 ② → 유기되다(遺棄--): 내다 버려지다.
- ④ → 근절하다(根絶--):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다.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꼽고’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㉔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11. ①

‘뿔혀서 지목되다.’라는 의미인 ‘뽑다’의 피동사는 ‘뽑히다’로 이에 ‘-어지다’가 결합한 ‘뽑혀지다’는 이중 피동이므로 ‘뽑히고’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리셋 증후군’이 주어이므로 ‘뽑고’로 수정한 것은 잘못이다. ‘뽑고’를 쓰려면 ‘현재 리셋 증후군을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뽑고 있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12.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姓은 楮이요, 이름은 白이요, 字는 無玷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 (중략) … 성질이 본시 정결하여 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文士와 더불어 노니는데, 毛學士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 ① 대나무 ② 백옥 ③ 엽전 ④ 종이

12. ④

이첨(李詹)이 지은 가전체(假傳體) 소설인 ‘저생전(楮生傳)’의 일부분이다. 특히 ‘무인(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문사(文士)와 더불어 노니는데’라는 부분에서 ‘종이’를 유추할 수 있으며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는 종이에 글을 쓰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13.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 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 ① ㉠: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④ ㉣: 호사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3. ②

보도 기사의 내용에 알맞은 표현을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이므로 ‘그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는 마무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소송이나 다툼’을 보도하였으므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무리는 적절하다.
- ③ ‘결과’가 드러나지 전이므로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의미하는 ‘귀추(歸趨)’가 주목된다는 마무리는 적절하다.
- ④ ‘스캔들’에 대한 보도이므로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호사가(好事家)’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 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랑 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습니다.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련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에서 -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다.
- ② 생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다.
- ③ 말뚝이가 굿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
- ④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생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다.

14. ③

말뚝이는 ‘쉬이’라고 하여 음악과 춤 멈춘 다음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 따라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15. ②

‘내(內), 외(外), 초(初), 말(末)’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대체로 띄어 쓴다.

(오답 피하기)

- ① → 해도 해도
- ③ → 대접하는 데나
- ④ → 정공법밖에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멎고 그 서슬에 밑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울이 흠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달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흔들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잽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에서 -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 ②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16. ③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철조망은 아이들이 넘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에서 알 수 있다.
- ②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와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에서 알 수 있다.
- ④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에서 알 수 있다.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0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게 일어난다.

만약 집에 ㉠**좀도둑**이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몽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도둑은 ㉢**갓**도로 돌변한다. 인체가 H5N1에 감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

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 면역계의 과민 반응
- ② ㉡: 계절 독감
- ③ ㉢: 치명적 바이러스
- ④ ㉣: 극심한 폐렴 증세

17. ③

1단락의 내용에 따라 비유적 의미를 해설하면 된다. ‘도둑’은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강도’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에 의해 일어난 ‘치명적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② ㉡: 과민 반응한 면역 능력
- ④ ㉣: 숙주인 인간의 사망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ㅁ.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ㄱ - ㄹ - ㄷ - ㄴ - ㅁ
- ③ ㄹ - ㄴ - ㅁ - ㄱ - ㄷ
- ④ ㄹ - ㅁ - ㄴ - ㄷ - ㄱ

18. ①

시간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순서를 잡는 것이 적절하다.

ㄱ(1700년대와 미국 이주민들의 높은 평균 소득) - ㄷ(높은 평균 소득의 이유) - ㅁ(초기 정착기의 풍요로움의 이유) - ㄹ(남북 전쟁 이후의 상황) - ㄴ(실제 상황)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꾸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19. ④

글의 화제인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로 볼 근거는 없다.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닳 되들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③

행위의 주체를 각각 살펴보면 ‘㉠ 유화, ㉡ 금와왕, ㉢ 주몽, ㉣ 부여의 활 잘 쏘는 사람 또는 주몽, ㉤ 금와왕, ㉥ 주몽’임을 알 수 있다.